

장흥군, 천관산 '국가 명승' 지정 나섰다

호남 5대 명산...천연기념물, 민속·문화유산 풍부 조사용역 발주...내년 하반기중 문화재청에 신청

장흥 천관산은 호남 5대 명산으로 꼽힌다. 풍광이 뛰어나 봄에는 진달래가, 가을에는 억새가 장관을 이루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존재고택, 효자송, 장천재 등 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유형문화재 등 문화유산도 풍부하다.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이어졌던 암자터만 89개에 이른다.

장흥이 천관산에 대한 국가 명승 지정을 추진하고 나선 이유다.

장흥군은 14일 문화재청에 천관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名勝) 지정을 신청하기로 하고 사전 단계로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천관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교육·명상·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명승으로 지정되면 관광자원으로서 지명도가 더욱 높아지고 동식물·광물까

지도 범물로 보호를 받으며 향후 관리·보수 등에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흥군은 이같은 점을 들어 '장흥 천관산 명승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을 최근 발주해 내년 상반기까지 천관산 일대 역사·지리·유적 분포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무형 문화유산과 불교 유적, 향촌사호 유물, 선사유적의 현황과 성격 등도 조사 대상이다.

장흥군은 특히 용역을 통해 통일신라~고려시대까지 천관산 골짜기에 터를 잡았던 89개 암자들에 대한 집중적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천관사, 탐산사, 장천재, 방촌리 고인돌, 존재고택, 신와고택, 오희고택, 방촌리 석장승, 옥담리 효자송, 삼산리 후박나무 등 다양한 문화, 역사, 학술자원의 가치와 의미를 도출해낸다는 게 장흥군



장흥 천관산 동백숲.

구상이다. 장흥군은 내년 상반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말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천관산은 자연적 아름다움과 역사, 문화, 학술성 등의 가치를

다양하게 갖춰 국가 명승으로 손색이 없어 신청을 준비중"이라며 "명승으로 지정될 경우 관광지 위상이 높아지고 체계적 정비,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전남도 목공예 경진대회 영암 박공년씨 최우수상

박공년씨 붓걸이 작품

학사모에서 착안한 다용도 선반 및 붓걸이(사진)가 제 1회 전남도 목공예 경진대회에서 목공예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국산목재 활성화와 우수 목공예인 선발을 위한 것으로, 박공년(60·영암읍 영암읍)씨가 제작한 붓

걸이는 전통의 멋과 현대의 실용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인 산림정장상을 수상했다. 학사모에서 디자인을 착안, 국산 먹감나무와 오토나무를 활용해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제작했다. 붓 뿐 아니라 다용도 걸이로 사용할 수 있다. /영암=전봉희기자 jbh@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22일까지 생활자기 신상품 전시회

생활자기도 신상품으로 나왔다.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은 오는 22일까지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에서 '청자, 일상으로 초대'라는 주제로 '2017년 민간 생활자기 신상품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매년 열렸던 박물관 도예가 전시회와 달리, 민·관 협업으로 만들어진 신상품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박물관측은 올해 강진의 관요와 민간 요에서 개발한 청자 작품 중에서 30여종

을 선정, 전시한다. 청자의 아름다움과 청자 상품의 무한한 가능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의 다양한 민간관 생활자기 신상품 전시회"를 연다. "이런 전시회는 매년 열렸던 박물관 도예가 전시회와 달리, 민·관 협업으로 만들어진 신상품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편, 고려청자박물관은 지난 1월부터 신상품개발 TF팀을 운영하며 강진 26개의 민간요를 지원, 신상품 개발을 지원해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제주 뱃길 재개 또 불발...장흥 노력항 연안항 지정 난항 읍초 협약 맺은 선사 취항 포기

장흥군이 추진중인 노력항의 연안항(국가항) 지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1년 넘게 중단됐던 '장흥~제주' 뱃길 재개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항만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작용하면서다.

14일 장흥군에 따르면 부산의 S업체는 올해 초 장흥군과 협약을 맺고 회진면 노력항~제주 성산포항 간 4000t급 쾌속선을

운항기로 했지만 최근 취항을 포기했다. 앞서, 장흥 노력항과 제주 성산포항을 잇는 오렌지호도 1년 넘게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 2010년 7월 제주 뱃길이 열리면서 40만명이 찾는 항구로 자리잡았던 노력항은 2015년 10월 뱃길 중단 이후 '불꺼진 항구'로 전락했다.

이 때문인지 장흥군의 노력항의 연안항 지정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 2013년부터 해양수산부에 노력항의 지방관리 연안항 지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항만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 등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연안항으로 지정되면 300억원을 들여 방파제(160m) 건설, 물양장(140m)

건설 등을 통해 노력항을 남해안권 도서 관광중심지로 개발하는 구상을 세워놓았지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흥군이 지난 2010년 장흥 노력도 종합개발사업에 따라 110억을 들여 추진했던 노력항 방파제, 편의시설 확충, 주차장 조성 등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원광대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22일 개원...한·양방 협진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에 오는 22일 개원하는 원광대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원광대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이 오는 22일 개원한다.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은 통합의학적인 진료와 연구, 교육과 의료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에 지상 4층, 지하 1층(건축 연면적 9159㎡·100병상) 규모로 지어졌다.

운영을 맡은 원광학원은 운영 초기에는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통합의료서비스 치료 모델과 진료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진료시스템도 일반 병원과 달리, 환자가 기다리는 진료실로 의사·한의사가 찾아가 각각 예진을 하고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놓고 의사와 한의사가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통합의학적인 진료 방식을 택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천관농협 다문화가정 '희망송아지' 전달

천관농협의 희망 송아지 나눔 릴레이 활동이 3년째 이어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천관농협은 최근 장흥군 대덕읍 신흥마을 안병을씨 축사에서 '희망송아지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

희망송아지는 농협중앙회가 다문화가정을 찾아 희망송아지를 전달, 농가 자활과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했다. 후원받은 농가가 키운 송아지가 새끼를 출산하면 다른 농가에 지원하는 릴레이 후원 방식으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천관농협 김의중 조합장은 "희망송아지가 다문화가정에게 희망과 자립의 의지를 심어주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투자가치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금매합니다. 주인직매 H. 010-3605-5000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9억 3000만원 (평당 18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8억 5000만 (평당 60만원)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 협의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600만원

공산면,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5200만원(조정가)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팻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타 부동산 교환가
- 매매 - 협의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1-1
- 토지 49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250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300만원 임대 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